

“주 4일 근무제 정착...워라벨이 직원의 행복”

(일과 삶의 균형)

국내 중견기업 첫 '4일 근무제' 도입 사내 직원 휴식공간 '에듀윌역' 인기 경력직 입사촉하금·취준생엔 면접비 박 대표 “사람이 자산...사람에 투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1인당 평균 노동 시간은 2113시간으로 1위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영국,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노동생산성이 뒤지는 이유는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 때문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한 '워라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잦은 야근, 휴일 근무의 벽은 여전히 높다.

이러한 국내 경제, 기업계 현실 속에서 “사람이 자산이다”라고 외치며 ‘꿈의 직장 프로젝트’를 펼치는 기업이 있으니, 바로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이다. 잔잔한 호수 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로 시작된 에듀윌의 목소리는 불과 몇 달 사이에 거대한 울림이 되어 세상을 바꾸어나가고 있다.

● 주 4일 근무제의 성공비결은 “일할 땀 일하고 놀 땀 놀자”

에듀윌은 임직원들의 워라벨 실현을 위해 ‘주 4일 근무제’라는 파격적인 제도를 6월에 도입했다. 2020년 1월부터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는 물론 중견 이상 규모의 기업 중에서 최초의 사례로 국내 기업, 직장인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에듀윌은 11월 ‘주 4일 근무제’ 시행 부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10점 만점에 9.49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임직원이 가장 좋아하는 복지 제도’로 등극하게 됐다. ‘자랑스러운 복지 제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90% 이상의 임직원이 ‘주 4일 근무제’를 꼽았다.

임직원 워라벨 실현을 위한 에듀윌의 고심과 노력은 ‘주 4일 근무제’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는 오전 8시30분 출근시간을 9시30분으로 1시간 늦춰주고 오후 4시부터 30분간의 ‘집중 휴식시간’을 유지했다.

임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이 캠페인의 타이틀은 ‘영차 영차 일하고, 연차 연차 쉬어요’. 직원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원, 부서장들이 출근수범해 연차를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한 날을 축하해주는 ‘축하한 DAY’도 있다. 예를 들어 임직원들은 생일이나 결혼기념일과 같



▲ “일할 땀 일하고 싶 땀 쉽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업무회의를 하고 있는 에듀윌 임직원들의 표정이 밝게 느껴진다. 업계 최초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에듀윌은 2019년에도 성장을 이어갔다. 사진제공 | 에듀윌

은 특별한 날에는 오후 4시에 조기퇴근할 수 있다.

임직원의 일할 맛 나는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한 에듀윌의 노력은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에서도 드러난다. 에듀윌의 본사 지하 1층에는 ‘에듀윌역’이 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피로를 풀어줄 안마의자, 사내 도서관 ‘북힐즈’, 게임 오락시설까지 구비되어 있다. 전문 안마사 헬스키퍼가 상주하는 ‘힐링큐브’도 있다. 모든 임직원이 업무 시간 내 1회당 30분씩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데 평소 예약이 팍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에듀윌이 이처럼 임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대폭 줄이고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실험, 도전이 있었다.

박명규(65) 에듀윌 대표는 “근무시간이 생산성에 비례한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직원들이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싶 때는 쉬는 것이 오히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물리적으로만 보면 주 4일 근무는 5일에 비해 20%의 근무시간이 줄어든다. 20% 중 10%는 인력을 충원해 보충하고, 나머지 10%는 임직원 모두가 업무에 집중해서 채우면 된다고 보았다”.

6개월간 시범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실시한 결과 에듀윌은 오히려 전년 대비 20% 성장의 결과를 낳았다.

● 인재들이 에듀윌을 선택하는 세 가지 이유

‘꿈의 직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에듀윌은 취준생뿐만 아니라 이직을 희망하는 전문 경력자들에게까지 입사하고 싶은 기업,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에듀윌이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발표한 후 채용 사이트 방문자가 71%나 증가했다.

‘사람이 자산’임을 표방하는 기업답게

에듀윌은 채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채용 프로젝트’도 가동 중이다. 입사촉하금, 사이닝보너스, 면접비 등이 이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아이템이다.

‘입사촉하금’은 경력직 입사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이닝보너스’는 대리 이상의 경력직 입사자에게 연봉 외에 최대 500만 원까지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퇴사를 하는 직원에게 해당 기간 급여 외에 200만 원의 보너스를 제공하는 ‘굿바이보너스’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름부터가 독특한 ‘천천(千千) 프로젝트’도 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은 입사자에게 기존 연봉 대비 최대 1000만 원과 입사촉하금 최대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에듀윌의 핵심인재 채용 프로젝트이다.

입사를 위해 지원서를 낸 취준생들을 위한 배려도 눈에 띈다. 1차 면접 5만 원, 2·3차 면접까지 치를 경우 각각 10만 원씩을 면접비로 지급한다.

에듀윌이 인재 채용을 위해 이처럼 다양하고 적극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 박명규 대표는 “사람이 자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에듀윌의 이러한 노력으로 매년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다. 박 대표는 “입사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에듀윌의 성장 가능성과 비전,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조직문화, 복지제도에 매력을 느껴 입사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에듀윌의 미션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교육기업입니다. 고객의 꿈, 직원의 꿈, 지역사회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에듀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에듀윌의 자랑 복지·포상 제도

직원 위한 ‘힐링큐브’ 운영 10·15·20·25년 근속자엔 한 달 휴가에 100만원 지원

에듀윌은 임직원의 건강을 위해 전문 안마사 헬스키퍼가 상주하는 ‘힐링큐브’를 운영하고 있다. 힐링큐브는 임직원 네이밍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하루 최대 30명씩 이용할 수 있으며, 에듀윌의 임직원들은 업무 시간 내 1회당 30분씩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에듀윌은 힐링큐브에 추가적으로 여직원 수면실과 수유실을 마련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여성 전용 휴게실 ‘쉼’의 규모를 대폭 늘렸다.

에듀윌은 회사의 지속 성장에 헌신한 장기근속자를 위한 포상제도를 마련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 5년 근속자에게 2주의 포상휴가 및 5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하며 10년, 15년, 20년, 25년 근속자에게는 한 달의 포상휴가와 100만원에 달하는 포상 휴가비를 준다.

에듀윌은 임직원의 전문 역량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내 시상제도를 운영한다. 밝은 미소와 배려로 사기를 북돋는 직원을 위한 ‘스마일상’, 남다른 패기와 열정이 돋보이는 직원을 위한 ‘열정상’, 업무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위한 ‘우수사원상’ 등을 매달 시상하고 호텔 뷔페급의 우수사원 오찬과 시상금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매년 수시로 ‘가족공로상’, ‘우수팀장’, ‘우수팀’을 선정하고 있는데 가족공로상의 경우 회사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준 임직원 및 가족에게 감사의 의미로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는 상금과 포상 휴가를 지원한다.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도 눈에 띈다. 2019년 5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던 A형 간염의 예방을 위해 임직원 단체 예방접종을 진행했으며 에듀윌은 1인당 19만 원에 해당하는 접종비 전액을 지원했다. 임직원 500여 명의 접종에 소요된 비용은 여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연을 희망하는 임직원을 위해 사내 금연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금연 서약서를 작성하고 에듀윌 금연클리닉에 참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월 1회 금연 정기교육을 6개월간 실시하며 금연에 성공한 임직원에게는 금연 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시상한다. 양형모 기자



▲ 2019 일자리 창출 유공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에듀윌의 박명규 대표.



▲ 직원들의 인기만점 문화공간인 ‘에듀윌역’.

네헤브카의 멋진 솔로, 진짜 감동이야!

양형모 기자의 공소남닷컴

뮤지컬 ‘아이다’의 신스틸러 지새롬

벌써 세 시즌째...인정받는 실력과 ‘거리노래방’ 계기 유튜브 방송 시작

“이건 역대급, 아니 레전드다!”

구독자 254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브 채널 ‘창현 거리노래방’에 출연해 어마어마한 가창력으로 “역대 출연자 중 레전드를 찍었다”는 평을 받은 여성 출연자에 대한 시청자들의 공

급증이 폭발했다.

알고 보니 이 레전드 출연자의 정체는 뮤지컬배우 지새롬(31). 시청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뮤지컬배우? 어쩐지...”와 “지새롬이 가요를 이렇게 잘 불렀어?”

지새롬은 요즘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인더파크홀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아이다’에 출연 중이다. 벌써 세 번째 시즌. 특정배우가 세 시즌이나 한 작품, 한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오디션장의 심사위원, 제작 스태프는 물론 관객이 모두 인정해야 가능하다.

지새롬은 네헤브카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집트에 노예로 끌려가는 누비아의 공주 아이다의 베스트 프렌드다. 아이다가 돕다 결국

그를 대신해 목숨을 잃는 인물. 지새롬은 “누구보다 강한 정신력을 가진 친구이기에 한 치의 흔들림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지새롬은 아이다의 신스틸러로 유명하다. 관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1막 끝의 ‘더 갓스 러브 누비아(The God’s love Nubia)’이다. 아이다가 누비아인들과 함께 누비아를 그리워하며 조국의 영원함을 기원하는 감동적인 넘버로 네헤브카의 멋진 솔로 파트도 등장한다.

“개인적으로 ‘댄스 오브 더 로브’를 가장 임팩트 있다고 생각했는데 관객분들은 ‘더 갓스 러브 누비아’를 더 인상 깊게 보시는 것 같았다. 1회 엔딩을 하고 내려왔을 때 배우로서 해 소감 같은 게 있다. 무대 위에서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것이 너무나 만족스럽다.”

‘창현 거리노래방’ 출연으로 지새롬에게 생긴 변화는 두 가지다.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과 자신의 이름을 내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새롬은 ‘거리노래방’ 출연을 계기로 전부터 고민하던 개인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 채널의 이름은 ‘김미롬’. 통영의 고향친구가 지어준 이름이란다. 이미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선배배우의 조언을 따라 힘들지만 촬영, 편집 작업도 직접하고 있다고.

뮤지컬 한 걸음만 내디뎠을 지 9년. 2019년은 유튜브가 있어 배우인생에 생기가 넘쳤고 활력이 더했다. 유튜브라는 이름의 새로운 물결은 2020년 과연 지새롬을 어디로 데려다 줄까.

더욱 새로워져라! 더욱 감미로워져라! 지새롬, 파이팅! hmyang0307@donga.com



뮤지컬 ‘아이다’의 신스틸러 지새롬. 그는 최근 유튜브 김미롬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얻었다. 사진제공 | 신시컴퍼니